

이렇게 들었다

화합 서로 양보하면 서로 즐거움 얻어

아직도 조계종사태의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다. 물론 각 진영마다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세속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利)를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자신의 입장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배치된다면 마땅히 논의하고 타협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승가 앞에는 흔히 '청정'이라는 말이 붙는다. '청정승가'는 자신의 이(利)를 떠난 이타적인 집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집단에서 화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화합은 양보를 기초로 한다. 지금 온 국민은 바로 그러한 화합을 바란다. 화합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저렇게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和合)한 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다름의 근본을 뽑아라. 너희들은 또 마땅히 생각을 오로지 하여 스스로 관찰하라. 만일 맞힌 원한이 이미 다했거든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써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라. 모든 비구들이여, 성내고 뒤돌아서 자상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질투하며 교활하고 허망하여 스스로 자기 소견에 인해 그릇 받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견(邪見)에 해매고 변견(邊見)과 함께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중진경)

■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름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 있기 일췌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름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세계의 실상을 살삼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사유법전소문경)

■ 곱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글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름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 사문 고포타마는 두 말을 버려 없애어 이 말로서 저를 괴란(壞亂)하지 않고 저 말로서 이를 괴란하지 않으며 평승이 있으면 잘 화합시키고 이미 화합하면 그 화합을 더하며 말하는 바가 있으면 화합을 떠나지 않고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가 말하는 바는 때를 안다.

또 사문 고포타마는 악구(惡口)를 버렸다. 만일 추한 말로 사람을 손상하면 그의 결연(結怨)을 더 하고 원한과 미움을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런 추한 말은 아주 하지 않고 언제나 착한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여러 사람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바로써 영증을 내지 않는다.

(범동경)

■ 햇빛을 들고 나온 초인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이다. 그 빛 속에서 인간은 제 자신과 남들을 발견하고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우친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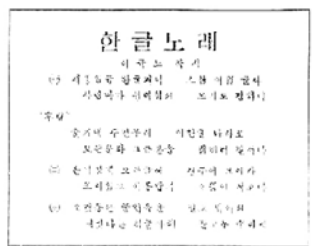
(대반열반경)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45년11~12월)

량주시 학무과의 적극지원 학약

- 1945년 11월23일(금)

이만홍스님 등은 회의가 있다고 해서 혼자 한글문화보급회 전남지회를 찾았다. 강습회의 진행과 계획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지회장이 없었다. 다른 쪽에서 <한글 첫걸음>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가만히 들으니, 이 책은 학교 교과서로 2주일 전에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것을 이곳에서 교재로 하용하기 위해 임의로 인쇄하였다는 요지였다.



◇한글문화보급회 기관지 「한글 문화」 창간호(1946.3). 35면에 실린 당시의 '한글 노래' 기사.

지회장을 만나지 못하고 속소로 돌아오고 말았다. 속소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다시 도청 학무과(學務課)로 갔다. 학무과에서 '이력'이라는 사람을 만나 용건을 설명했다.

그는 열심히 듣고 있더니 이번 백양사 한글강습회 수료생의 계몽강사 인정과 수요처에 배치 등 요청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면서, 만약 못하게 되면 자리를 떠나겠다고까지 다짐하는 것이었다. 강습회를 학교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제출하라고 하고, 내가 편찬할 강습용 교본의 출판, 공급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일제가 몰려간 마당에 한글보급이면 무슨일이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호의가 상쾌하였다.

속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는 스님들과 극장에 갔다. '반도의 춘(春)'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한글강습회 개강식

- 1945년 11월26일(월)

강습회 개강식이 열렸다. 국기에 대한 경례, 중국열사에 대한 묵도, 주최자 개회사, 강사 인사말씀, 만세삼창으로 끝났다. 내일부터 강의하기로 되어 속소로 돌아왔다. 각오(角帽)를 쓴 학생이 와서 보성전문학교 2학년생이라고 인사하였다. 모교의 개학일을 몰라 근심이라며 강습회 지도를 해달라고 했다.

개강, 강동적 강령 제창

- 1945년 11월27일(화)

아침에 일어나자 강습회 시간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왔다. 오전 9~12시, 오후 1~4시로 하고, 중간에 10분씩 쉬기로 하였다. 이것저것 바쁘게 준비를 하느라 10분 늦게 개강하였다.

첫시간에는 강습회의 목적, 과정의 진도와 교재, 시험과 졸업증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목적은 다음 세 강령을 해득케 하는 것이었다.

1. 우리는 3천만 동포 하나하나가 눈뜬 봉사가 없게 하자.
1.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로 새문화를 건설하자.
1.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세계문화를 지도하는데까지 이르도록 힘쓰자.

이 강령은 조선어학회 제1회 국어강습회 졸업생들이 1945년 9월 29일에 조직한 한자(漢字)폐지 실행회 발기 준비회의 발기취지서 끝에 천명된 것인데, 한글보급의 목적이 잘 나타난 것이어서 한글노래와 함께 동사해우고 제창시키며 외우게 하려고 한 것이다. 2교시에는 문자사(文字史)를 강의했다. 한글의 중요한 문헌으로 알려진 <훈민정음>과 <월인천강지곡>을 돌려 보이고 설명하였다. (계속)

독자의 소리

"금강산코스 불교유적 필수"

11월 18일, 60년만에 금강산 길이 열렸다. 많은 국민들에게 꿈처럼 느껴지는 일이었다. 실랑민들의 마음이야 오죽 하겠는가. 그런데 이번 금강산관광이 외금강 코스였기 때문인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다. 신계사터가 유적이었나 그마저도 지나쳤을 뿐이다. 민족정신에 큰 영향을 끼쳤던 고승들이 수행했던 사찰에 들르지 않는다면 단지 훌륭한 풍광을 보는 것 이상이 아니다.

금강산은 절묘한 기암괴석을 비롯한 빼어난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도 사찰, 탐, 마애불 등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불교유적이 더욱 유명하다. 남북간의 문화적 동질성의 뿌리는 민족유산이며, 불교유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강산 관광이 단지 유적이 아니고 동일로 가는 길이라면 불교유적 순례코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현기(서울 서교동)

취임식 대신 노인잔치 호투

현대불교신문 11월 11일자에 '주지취임식 대신 노인잔치'라는 기사를 보았다. 마곡사의 새 주지로 취임하는 진허스님이 거창한 취임식 대신 2천여명의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흥겨워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흐뭇했다. 더욱이 주지스님의 말씀은 사찰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하는 그 어떤 웅변보다 설득력이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마곡사를 우리 절이라고 생각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노인잔치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석규(인천 연수구 옥련동)

열린마당

문화재 매매 자유화

문화재 매매가 자유화되고 문화재 매매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정부 규제개혁위의 개혁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기관이 나서서 오히려 규제해야 할 부분인데도 자유화라는 이름하에

무차별한 문화재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요지. 이에 반해 문화재 매매의 자유화는 국보·보물급 문화재가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 매매 자유화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문화재 보존 국가의무 포기

임호재 <한국선사고고학회 회장>



발굴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수립 시 지표조사를 의무화한 규제 개혁위원회의 조치는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문화재 매매 자유화 조치나 도굴문화재나 장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 폐지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민족문화의 승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를 상품화하여 가격을 매기고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 문화재 감정원 같은 것을 국립기관으로 뒤서 유물의 출토 경로에서부터 유물의 진품여부를 가려내고 감정을 통한 공증가를 매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재들은 문화유산의 집합소인 박물관이나 연구소에 들어가서 후대를 위해 보존 연구가 되어야만 한다. 문화재는 한번 손상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가 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를

문화재 음성유통 근절 기회

임영주 <인사동고미술협 연구실장>



문화재 매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문화재 매매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이다. 사실 도굴문화재나 장물이라 해도 현장을 보지 않는 한은 이것이 도굴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필 총리)는 문화재관리국 소관 규제 1백36건 중 68건을 폐지하는 규제개혁안을 확정하고 내년부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개인소유 문화재를 골품품 상점이나 개인 애호가에게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매업 설립은 신고제로 바뀐다. 도굴문화재 또는 장물로 인정되는 문화재를 매매하거나 위탁받은 때는 시장, 군수, 수사기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개인소유 문화재 내년부터 매매자유

문화재 매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문화재 매매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이다. 사실 도굴문화재나 장물이라 해도 현장을 보지 않는 한은 이것이 도굴된

현 중단 사태에 대한 강원연합의 결의

강원연합은 피끓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현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사항을 표명합니다.

1. 종단의 안정을 위하여 정화개혁회의는 총무원 청사를 즉각 비워라
2. 조속한 시일내에 종헌종법에 따른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라.
3. 어떠한 대의 명분이라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하지 않는다.
4. 현재 종단 분류에 학인들을 연루시킨 제 단체는 즉각 학인을 강당에 복귀시켜라.
5. 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해결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

1998. 11. 27

전국 전통 강원 연합

- | | | | | | | | |
|--------|--------|--------|--------|--------|--------|--------|--------|
| 동학사 강원 | 백양사 강원 | 범어사 강원 | 법주사 강원 | 봉녕사 강원 | 불국사 강원 | 삼천 강원 | 쌍계사 강원 |
| 송광사 강원 | 수덕사 강원 | 순문사 강원 | 직지사 강원 | 철암사 강원 | 통도사 강원 | 해인사 강원 | 화엄사 강원 |